



박상화 작 '도원경'

팬데믹 시대, 가상공간에 던지는 메시지

오는 11월3일까지 은암미술관서 'Digital Signal'展

유네스코 미디어아트 창의도시 광주지정 7주년 기념전

코로나19 팬데믹 시대 새로운 삶의 방식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비대면 가상 공간에 대한 메시지를 전달하는 전시회가 열리고 있다.

은암미술관(관장 채종기)은 유네스코 미디어아트 창의도시 광주지정 7주년을 맞아 오는 11월3일까지 'Digital Signal' 전을 개최한다.

참여하는 한국 작가는 김해경, 레이박, 문창환, 박상화, 이배경, 이한수, 임용현, 정기현, 정운학, 정정주다.

독일 작가로는 샤샤 폴레, 프랑크 작가는 마헤아스 피에르가 참여한다.

이들 작가는 미디어아트의 개념을 쉬운 메시지로 전달한다.

디지털 시그널은 모든 신호 체계이며, 신호는 변화를 전달한다. 현실 세계에서 가상공간은 확장에 따른 이색적인 활동과 체험이라는 변화의 흐름이다.

정보를 갖는 것은 모두 신호로 볼 수 있다. 시그널은 일정한 부호, 표지, 소리, 몸짓 따위로 특정한 내용 또는 정보를 전달하거나 지시를 하는 데 사용되는 부호다.

시그널은 응용 목적에 맞게 변형되

며, 신호체계로 사용하거나 장치를 제어할 수 있다. 음성 또는 이미지를 데이터에 실어 보낼 수도 있다.

21세기 융합 시대에 맞는 '디지털 시그널'전은 다양한 매체를 활용한 미술 분야의 변화와 AI 시대의 인간과 사물을 대신하는 비대면 가상공간의 존재에 대한 메시지를 전한다.

김해경 작가는 중국 고대 산수화와 도자(공예 포함) 길상 문양의 아름다움에 매료됐다. 이를 뉴미디어로 표현하기 위해 고미술의 요소들을 빛과 움직임으로 접목시켰다.

레이박 작가는 빛의 강렬한 색상을 통해 연속적으로 찍어내는 홀로그램 작품과 특정 상품의 신호에 따른 패턴 문화를 표현했다.

문창환 작가는 타인과의 교류가 단절되는 사회에 그린 큐브(green cube)로 자연을 돌아보는 예술을 시도했고, 박상화 작가는 현대문명의 발달 속에서 현대인들의 건조무미한 삶에 변화와 새로운 상상으로 채워줄 마음의 여백을 만들었다.

이배경 작가는 영상과 인터랙티브 작



정정주 작 'Transfer 2017'

업을 통해 시간과 공간, 그리고 개인의 경험에 관한 새로운 인식을 확장하는 미디어를 설치했다.

이한수 작가는 편이(偏移)와 상상(想像)의 역학관계를 힘의 움직임 또는 일그러짐에 대한 문화적 현상으로 드러냈으며, 임용현 작가는 미디어아트를 통해 미디어 세상을 이야기하거나 표현했다.

정기현 작가는 단편으로 제작된 마을 영화 속에 버려진 쓰레기 터미를 무대로 삼아 마을 주민들의 일상을 연극의 한 장면처럼 연출했다.

정운학 작가는 내재돼 있는 빛을 상징적인 의미로 전개했다. 화면 속에 감

춰져 있는 대상을 하나씩 보여주며 생명력을 밝힌다.

정정주 작가는 본인의 작품 전개 과정에 있어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공간과 빛의 움직임을 다뤘다.

샤샤 폴레 작가는 '누가 빨강 노랑 파랑을 두려워하랴'에서 스티븐 스피버그의 영화 조스의 장면과 스틸컷이 담긴 영상 그리고 우표 시리즈를 담았다.

마헤아스 피에르 작가는 영상(시네마, cline)과 조각의 혼합을 한 장르로 시도하고 있다. 전시는 코로나19 확산 예방 및 관람객 안전을 위해 방역수칙을 준수해 진행된다. 관람 가능한 요일은 월-토요일이다. /최명진 기자



신철 작 '향수'

가을은 지나간 시절을 부른다

신철의 캔버스상책



소년 시절이었다. 친구들과의 사연이다. 아마 이맘 때쯤이었을 거다. 이름도 얼굴도 기억나지 않지만 함께 했던 풍경이 아직까지 아스라이 남아있다. 아침 일찍 남광주역에 모였다. 그리고는 남평까지 철도길을 따라 걸어갔다. 남평에 있던 친구 집에서 무엇을 하며 놀았는지 정확히 기억이 나지 않는다. 다만 청명했던 어느 가을 날의 하루를 즐겁게 보냈던 정경이 또렷이 뇌리에 새겨져 있다. 주머니마다 거머서 탄 감을 두둑하게 넣어 먹으면서 되돌아 왔었다. 물론 다시 철도길로 걸어서였다. 왜 그날이 각인돼 아직까지 남아 있는지 모른다. 그러나 그런 소중한 날의 기억이 세월이 지나면서 내게서 떠나 버릴까봐 걱정이다.

내 의지와는 상관없이 지나온 세월의 어느 순간이 썩듯 잘려 나가 망각의 상자 속에 갇혀버리는 일이 간간히 있다. 그 일이 좋은 좋지 않은 간에, 새롭게 힘을 내는 원동력이 되곤 한다. 가을은 그렇게 애잔한 추억 속으로 나를 끌고 들어간다. 그리고는 현재를 감사하게 하는 시간들을 가만히 선물한다. 오늘도 그런 선물같은 시간이다. 마음껏 만끽하며 한우하려 한다. 주변의 모든 것들을 귀히 여기며... (영평에서 화가 신철)

ACC에서 즐기는 인도문화여행

'상상마당 권역 투어'...10월 한달 매주 수·토요일

국립아시아문화전당 정원에서 초가을의 정취를 만끽하며 인도 전통문화를 즐길 수 있는 시간이 펼쳐진다.

문화체육관광부 국립아시아문화전당(ACC)은 'ACC 특별투어' 10월 프로그램으로 '상상마당 권역 투어'를 운영한다.

'ACC 특별투어'는 매달 다른 주제로 전문 해설사와 함께 ACC 공간을 둘러보는 프로그램이다.

'상상마당 권역 투어' 참가자는 ACC 어린이문화원 옥상정원인 상상마당에 식재된 나무와 꽃의 의미를 해설사를 통해 들으며 산책한다. 최근 상상마당은 경관 개선사업으로 감성적인 문화공

간으로 탈바꿈해 새롭게 단장한 일부 구간이 지난달 시민에게 개방됐다. 이어 어린이문화원 어린이극장에서 인도 전통 요가의 기원과 동작을 배우며 명상을 즐기는 치유의 시간을 갖는다.

'상상마당 권역 투어'는 오는 30일까지 매주 수·토요일 오후 2시30분과 4시30분 두 차례씩 진행된다.

둘째, 넷째주 토요일엔 야간투어(감성야행: 밤의 감각) 프로그램도 진행한다. 달빛 아래 상상마당을 거닐며 초가을 밤의 낭만을 즐길 수 있다. 간식 꾸러미도 제공돼 인도 전통요가를 깊이 있게 경험할 수 있다.

ACC 누리집(www.acc.go.kr)에서 참가예약을 받는다. /최명진 기자

'앙상블 온'이 들려주는 가을 밤 슈베르트 선율

광주문화재단 '월요콘서트', 오늘 오후 7시30분

광주문화재단은 18일 오후 7시30분 빛고을아트스페이스 5층 소공연장에서 '앙상블 온'의 '슈베르트를 노래하며' 월요콘서트 무대가 진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무대인 '슈베르트를 노래하며'는 공연의 가치와 실내악 공연에 대한 관심을 이끌어내기 위해 마련됐다.

슈베르트는 19세기 초반 소규모 살롱

뮤직이 유행한 당시 그 중심에 있었던 작곡가다. 독보적 서정의 세계를 품고 낭만주의 어법 안에서 고전성을 짚게 그린 작품을 만들었다.

공연 프로그램은 ▲피아노와 플루트 듀오를 위한 시든 꽃 주제에 의한 변주곡, 작품번호 802 ▲보이스, 첼로, 피아노에 의한 가곡 '강위에서', 작품번호 943 ▲

바이올린, 첼로, 피아노를 위한 3중주, 작품번호 898이다. 모두 슈베르트의 가곡을 원형으로 탄생한 작품이며 그 깊이와 서정, 기교에 있어 장르별 대작으로 평가받고 있다.

'앙상블 온'은 국내 정상급 기량의 중견 연주자들을 중심으로 창단됐다. 건반 연주자들은 광주·전남권 주요 음악대학 전임교수진이 주축이며, 관현악 주자들은 광주시향 수석 단원을 포함,

지역 내 음악계에서 두각을 나타내는 탄탄한 기량의 연주자들이다.

이날 공연 연주자로 박재연, 구재향, 이철민, 이준성, 최지혜, 이지연, 오재경 씨가 출연하며, 해설은 박관신 씨가 맡는다. 이날 공연은 선착순 50명 무료 관람이며, 8세 이상 관람 가능하다. 문화N 티켓 홈페이지를 통해 좌석 선택 예약 및 모바일 발권이 가능하다.

모든 공연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생활 속 거리두기 방역지침 준수에 따라 선착순 50명으로 제한한다.

/최명진 기자

광주 대인동의 문화공원 김넛과

카페
식음료, 카페갤러리, 아트상품 전시 & 판매

아트호텔
전객실 회화전시 / 장기숙박할인(음식조리가능)
지하갤러리(55평), 2층(75평) 전시, 상설공연, 도서관
매월 마지막주 목요일 음악콘서트(저녁 7시 30분)
최대 100여명 사용가능

주소 : 광주광역시 동구 대인동 52-2번지
전화번호 : 062-229-3355 (자세한 내용은 문의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SONY USB DVD 영상변환서비스

고객님이 소장하고 계신 TAPE를 가져오시면 USB/DVD로 만들어 드립니다.

- 1 화질 손실 없이 오랫동안 보관할 수 있습니다.
- 2 언제 어디서든 쉽게 영상을 볼 수 있습니다.
- 3 보관 장소가 줄어듭니다.

스마트폰과 PC 모두를 위한 듀얼 USB 메모리

소니서비스센터 062)522-2000 광주광역시 북구 금남로24 (임동5거리) 직영서비스센터